

보도설명자료 (’19. 9. 27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공공기관 ESS 설치 의무화 개정은 익성, 자회사
IFM 설립과는 무관함 (매일경제 9.27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)

◇ 공공기관 ESS 설치 의무화는 ‘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규정’ 개정(’16.5.27)에 따라 시행된 제도로써, ’17년6월 익성의 자회사 IFM 설립과는 무관함

◇ 9월 27일 매일경제, <익성, 자회사 IFM설립 한달뒤 文대통령 "公기관 ESS 의무화">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.

1. 보도 내용

□ 익성, 자회사 IFM설립 한달뒤 文대통령 "公기관 ESS 의무화"

2. 동 보도에 대한 산업부 입장

□ 공공기관 ESS 설치 의무화는 ‘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규정’ 개정(’16.5.27)에 따라 시행된 제도로써 ’17년 6월 익성이 IFM을 설립한 것과는 무관함

※ 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분산에너지과 이경훈 과 장(044-203-5190)
박상호 사무관(044-203-5198)